

【 해외금융 뉴스: 일본 】

일본생명, 푸르덴셜에 대규모 추가 출자

□ 일본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일본생명은 최근 글로벌 금융그룹인 푸르덴셜 자회사에 5억 달러(약 455억엔)를 출자했다고 발표함.

- 일본생명은 푸르덴셜 자회사인 푸르덴셜 인슈어런스 컴퍼니 오브 아메리카(PICA)가 발행해 5년 후 푸르덴셜 파이낸셜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형 금융상품을 9월 18일에 매수했다고 공식 발표함.
- 이미 푸르덴셜이 발행한 주식 수의 0.56%에 해당하는 256만주를 보유하고 있어 전환 후 일본생명이 보유하게 될 주식 수는 약 1~2%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출자를 통해 푸르덴셜은 금융위기로 악화된 재무 체질 개선 및 아시아 보험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생명도 푸르덴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전략 강화로 새로운 보험시장을 개척한다는 방침임.

- 푸르덴셜은 생명보험 및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2위의 글로벌 금융 그룹으로 일본에서도 푸르덴셜생명과 지부랄타생명(Gibraltar Life) 등의 자회사를 통해 보험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미국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이 검토될 만큼 현재 경영이 악화된 상황임.
- 푸르덴셜은 이번 일본생명의 추가 출자가 자사의 재무 건전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본 최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일본 및 아시아 보험시장에서의 영업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 일본생명 역시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자국 생명보험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30여 개국에 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푸르덴셜과 장기적이고 긴밀한 업무 제휴를 바탕으로 해외 보험사업에 적극 진출한다는 전략임.

(마이니치신문, 9/17 · 산케이신문, 9/18)